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최세안 010-8486-8996 fix.nhrc@gmail.com)

제 목 [취재요청서]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26-06-05 (총 2쪽)

취재요청서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와 목적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선동해 온 인사를 주도로 하여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온 인물에게 관련 연구를 맡긴 것은, 인권위 스스로가 혐오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음을 한번 더 자인한 꼴입니다.
- 며칠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했습니다. 비록 선거 결과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전략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증명되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정치권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할 법적·사회적 의무를 완전히 방기했으며, 이를 넘어 이제는 혐오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 기관이 직접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같은 혐오세력에게 국가 예산과 인권위의 공적 권위를 주며, 혐오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 기구를 혐오세력의 ‘싱크탱크’로 전략시킨 안창호는 단 한순간도 인권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하며, 연구용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6. 6. 9.(화)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진행

- 사회.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발언1.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발언2.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3.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발언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2026. 6. 5.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